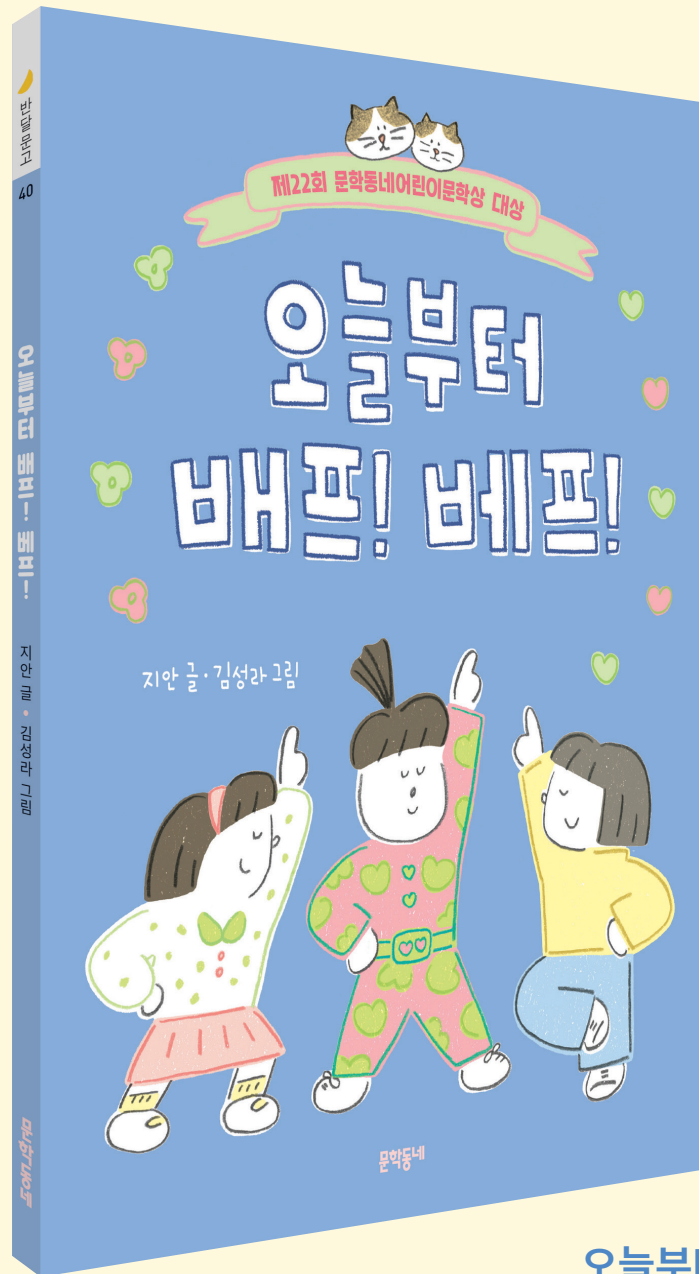




오늘부터 배프! 베프!

지안 글 · 김성라 그림 | 문학동네
초등 3학년 이상

책 소개

체크카드를 맘껏 쓰는 유림이가 부러웠던 서진이. 서진이에게 카드가 생겼습니다. 체크카드와 다른 급식카드지만 서진은 이 카드로 베프 유림이에게 맛있는 걸 사 줄 생각에 마음이 들뜩니다. 하지만 이 카드, 쓰는 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서진이의 마음을 느끼며 이야기를 읽어 보아요.

친구에게 맛있는 걸 사 주고 싶은 마음, 내 베프가 나보다 다른 친구와 더 친한 거 같아 꼬깃꼬깃한 마음, 새로 사귄 친구가 궁금해지는 마음, 엄마한테 가끔은 서운하지만 좋은 기분은 나누고 싶은 마음, 내 맘을 몰라주는 어른들한테 화나는 마음, 급식카드 때문에 마음 졸이고 싶지 않은 마음…….

무엇보다 ‘배프’와 ‘베프’가 하나씩 늘어나 즐거운 마음을 느껴 보세요.



『오늘부터 배프! 베프!』를 읽기 전에

이 책의 제목은 『오늘부터 배프! 베프!』입니다. 제목의 ‘배프’와 ‘베프’가 무슨 뜻인지 짐작해 봐요.

‘베프’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이지요. ‘배프’는 작가가 만들어 낸 말이에요. ‘베프’처럼 이 말도 어떤 말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말이 줄어드는 걸까요?

마음껏 상상해서 적어 보아요. 책의 내용과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상상을 적는 것이므로, 정답은 없어요.



활동2 주인공이 되어 일기 써 보기

『오늘부터 배프! 베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날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가지씩 적어 놓았어요.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주인공 서진이가 되어 일기를 써 보아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서진이 맘은 어땠는지, 적어 보아요.(3줄~7줄)
책을 다시 읽어 보고, 다른 사건으로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월요일

- 일어난 사건**
- 하트 뽕뽕 생긴 걸 유림이에게 자랑했다.
 - 유림이랑 분식집에 갔다.



서진이의 일기

유림이랑 함께 먹고가 분식집에 갔다.

하트 뽕뽕으로 유림이한테 맛있는 걸 사 주고 싶었다.

계산하려 했는데, 카드가 안 됐다. 당황하고 화나고 창피했다.

화요일

- 일어난 사건**
- 유림이한테 사천 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갚지 못했다.
 - 소리와 밥친구라서 함께 밥을 먹었다.



서진이의 일기

수요일

- 일어난 사건**
- 유림이네 엄마 선물 사러 편의점에 갔다.
 - 소망공원에서 김소리랑 김소망을 만났다.



서진이의 일기

목요일

- 일어난 사건**
- 유림이가 엄마 생일 파티 사진을 자랑했다.
 - 김소리한테 립밤을 선물했다.



서진이의 일기

금요일

- 일어난 사건**
- 유림이한테 오늘은 진짜 내가 쫓다!
 - 유림이, 김소리, 김소망이랑 모두 배프를 하기로 했다.



서진이의 일기

활동3 친구란 무엇일까?

“안 돼, 엄마한테 혼나. 너 밥 뺏어 먹었다고.”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려고 했다.

“너 나한테 떡볶이 왜 사 줬어? 내가 나한테 떡볶이 사 줄 때 나도 네 밥 뺏어 먹은 거야?”

유림이가 놀란 눈으로 보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나 여기서 떡볶이 먹을 건데, 그럼 너 나 먹는 동안 안 먹고 있을 거야? 떡볶이 먹고 싶다면?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네가 많이 사 줬으니까 나도 사 주고 싶단 말이야.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단 말이야. 친구는 그러는 거거든!”

서진이에게 친구란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싶은 사이입니다.

친구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아요.

 친구란

 친구란

 친구란

 친구란

 친구란



활동4 소망아, 너에게 소개할게

책을 끝까지 읽었나요? 서진이와 유림이, 소리는 편의점에서 만나 '배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친구는, 아기 고양이 소망이를 만나러 공원으로 향하지요. 소망이에게 유림이를 소개해 주려고요.

여러분도 소망이에게 소개하고 싶은 누군가 있나요? 아기 고양이가 앞에 있다고 상상하며 소개해 보아요. 나와 관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함께 겪었던 일들, 소개하고 싶은 이유 등을 적어 보아요.



소망아, 내가 너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이(가) 있어.

이름은 이고, 나와는 사이야.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일을 함께 겪었어.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활동5 내 마음을 말해 보아요

어른들이 내 맘이나 상황을 몰라줘서 속상하고 화나고 당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서진이는 급식카드를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이상하고, 떡볶잇값 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유림이네 엄마가 내준 게 하나도 고맙지 않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 나누며 밥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몰라줘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내 맘을 몰라줘서 속상했던 순간을 적어 보아요.